

軍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지상 교신

미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서 발사

1~4호기 군집운용 통해 북한 도발징후 빠르게 식별
연내 5호기 발사 계획…425사업 마무리 수준



미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기립 중인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 모습.

우리 군이 정찰위성 4호기(SAR) 발사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22일 “군 정찰위성 4호

기가 이날 오후 12시 27분 기준(한국 시간)으로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 기지에서 발사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2단 액체 추진(계로신+액체산소) 로켓이다. 세계 유일의 재사용 발사체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50회 발사 가운데 406회 착륙에 성공했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다.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국방과 학연구소(국과연) 주관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레도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

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군정찰위성을 지속 발사하고 있다. 425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 1세트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시스

사라진 北조용원·리일환 국정원 “신변 변동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및 리일환 선전비서가 장기간 공개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용원·리일환이 최근까지 공개활동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수행해온 조용원은 지난 2월 28일 개성시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50일이 넘도록 알려진 활동이 없다.

리일환은 1월 2일 노력혁신자 공로자 기념 촬영 시 김위원장과 동행한 것이 마지막 공개활동이다.

최근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맞아 주요 간부들이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관련 보도에서 조용원·리일환은 호명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과거 당 비서급 인사의 신상 변동 사유로는 노령으로 인한 은퇴, 병환, 혁명화 교육, 숙청 등이 있었다.

당국은 특히 조용원의 부재에 주목하고 있다. 조용원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당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했으며, 김 위원장의 현지도 일정을 거의 매번 수행할 정도로 실세였다.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비서를 맡고 있는 조용원이 당 간부 기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속 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자는 “조용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측근으로 활동했는데 벌써 한두달 가까이 활동이 없다”며 “만약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조문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

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

꺾인 빨대처럼 쓰러진 풍력발전기…기체 설계·시공 문제였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철강 공급난…철재 사용량 봐야

화순군 야산에서 쓰러진 높이 127m 풍력발전기의 지지대에 쓰인 철재 두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난에서 비롯된 발전기 부품 생산 과정의 원가절감, 나아가 조립 과정에서의 불량 등도 파악해야 할 대목이다.

2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도암면 화향산 정상부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8만2644㎡)에서 전날 쓰러진 4.7㎞급 풍력발전기(높이 127m)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착공 당시 시공사관계자들과 풍력발전기 부품을 만든 독일 지멘스 가메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쓰러진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

에서는 발전기 타워(지지대)에 쓰인 철재의 두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받아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블레이드와 로터, 이를 받치는 지지대로 이뤄져 있다.

수백여m 높이 지지대는 무거운 로터와 블레이드를 받치는 만큼 일정 설계 규모와 함께 튼튼한 철재가 쓰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14년 기술혁신개발사업 민간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의 발전 용량별 지지대의 과거 설계 통계가 언급된다.

3.6㎿급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지지대 직경이 4500㎜, 지지대를 이루는 철재 두께는 30㎜ 수준으로 지켜져 왔다. 5㎿급 풍력발전기 직경은 6500㎜, 철재 두께는 35㎜ 이상이 되도록 설계돼왔다.



특히 지지대를 이루는 철재는 한 장 당 6㎞ 이상 두께를 가진 열간 압연 강판인 ‘후판’이 여러 장 사용되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난을 맞기도 했다.

실제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지난해 1월 풍력발전에서 요구되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후판에 대한 공급량 병목 현상과 공급 부족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호 기자

진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즐기는 등 시작으로 공간을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여사는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테이بل을 가져와 차담(티타임)을 즐겼다”며 “문화유산인데 마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중앙정부, 지방예산 대폭 지원해야”

김경수, 광주 양동시장 찾아 상인·지지자들과 인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광주·전남에 얽힌 현안들은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풀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내건 지역 공약 일부를 언급한 김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안을 예시로 들면서 “중앙정부는 광주·전남 메가시티에 1년에 3~5조 규모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이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구걸하는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 대해서는 후보 간 합심을 통한 정권 교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네거티브 없이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당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시장 상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부터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아내 김정순 여사와 양동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시장 상인·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김도기 기자

‘국가애도기간’ 전 세계 추모 물결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펠탑 소등, 노트르담 88회 조종

21일(현지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후 전 세계에서는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모국인 아르헨티나부터 유럽 주요 관광 명소인 에펠탑까지 다양한 추모 의식이 열린다.

DPA에 따르면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난 국가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랜 가톨릭 전통을 보유했던 나라이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으로서 성하(聖下)의 선종을 깊이 애도한다”라고 밝혔다.

역시 유럽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사울의 애도 기간을 공표했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선언했다.

바티칸을 끼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추모의 의미로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 관광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교황의 선종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날 밤 에펠탑 조명을 소등한

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교황의 삶을 기리는 88번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바티칸에서는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모든 교회에 조종을 울리도록 요청했다. 주피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이 “모든 교회에 엄청난 고통이자 슬픔의 순간”이라고 했다.

세계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황이 생전 “크나큰 겸손으로 교황이 평화 속에 잠들기를”이라며 “그와 그를 사랑한 모든 이에게 신의 은총을 빈다”라고 했다.

이탈 조 바티칸을 방문했던 영국 국왕 찰스 3세는 교황의 선종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며 “인간과 지구를 보살핌으로써 교황은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교황이 생전 “크나큰 겸손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편에 섰다”라며 교황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다고 평했다.

李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민주 “김건희 ‘황제 관람’ ‘종묘 차담회’ 의혹 신속 수사해야”

김영호 “김건희, 거의 모든 비리·의혹에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주장하며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검 10차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거의 모든 비리·의혹에 김건희가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부인이 국가 최고 권력을 군림하려는 사실이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과 ‘종묘 차담회’ 등 특혜 논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11월 KTV는 8600만원을 들여 국악 공

연을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청와대 관저에서 진행·준비했다”며 “대중들에게 공개가 안 되는 곳이고 녹화 공연이라 관중이 없다고 했는데 김 여사가 공연 당일 찍힌 사진이 확보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연이 있기 전 KTV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잘 보이려고 사전에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확인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후 해당 관람을 준비한 실무자들은 대거 승